

광주시립예술단체
공연기획
2010 FOCUS



창작 발레 '명성황후'.

무용단 창작 발레 '명성황후' 해외 무대 교향악단 5·18 30주년 기념 말러 '부활'

올해 신입 단장들이 영입되면서 어느 해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2010년 공연 계획을 확정,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은 해외 공연, 100회 공연 등 굵직한 행사들이 대기하고 있어 바쁜 한해를 보낼 듯하다.
무용단은 지난 20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심청'을 공연한 후 7년만에 해외나들이를 한다. 현재 호주와 중국 등을 대상으로 공연 장소를 물색중이며 무대에 올릴 작품은 한국적 정서가 담긴 창작 발레 '명성황후'다.
무용단은 해외 무대에 서기 전 4월 정기공연에서 업그레이드된 '명성황후'를 다시 선보이며 5월에는 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작품 '5월의 빛'(가제)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10년만에 고전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다시 선보이며 100회 정기 공연 작품으로는 지금까지 공연했던 버전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고, 의상과 세트 등도 새로 제작해 '호두까기 인형'을 무대에 올린다.
교향악단(상임지휘자 구자범)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무대는 5·18 30주년 기념음악회는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부활'이다. 400여명 시민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설 '부활' 공연을 위해 교향악단은 현재 악보 작업 등을 서두르고 있으며 12월부터 합창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시즌에 눈에 띄는 건 협연자들이다. 교향악단은 세계 정상급 협연자를 무대에 세우는 한편 오디션을 통해 광주·전남 출신 음악인들을 협연자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지난 28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오디션에는 관현악, 피아노, 성악 등에 전국에서 활동중인 지역 출신 음악인과 학생 등 32명이 참여했다.

내년 시즌에 눈에 띄는 건 협연자들이다. 교향악단은 세계 정상급 협연자를 무대에 세우는 한편 오디션을 통해 광주·전남 출신 음악인들을 협연자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지난 28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오디션에는 관현악, 피아노, 성악 등에 전국에서 활동중인 지역 출신 음악인과 학생 등 32명이 참여했다.

또 유쾌한 만우절 음악회 등도 구상중이며 2010년 구체적인 연주 레퍼토리는 12월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악관현악단(단장 심인택)은 우리 전통 민요 '아리랑'만을 가지고 신춘음악회를 꾸민다.
피아노가 함께 연주하는 '아리랑 협주곡'을 비롯해 '아리랑'과 '애국가'가 함께 어우러진 창작곡,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등 각 지방의 아리랑을 모티브로 만든 창작곡 등을 새

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은 내년에 광주문예회관 기획공연으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춤과 연기보다는 음악이 중심이 되는 뮤지컬인 '사운드 오브 뮤직'을 통해 관객들이 좀 더 쉽게 음악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작품에 출연하는 어린이들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
또 3월에는 합창의 분류라 할 수 있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무반주 아카펠라로 연주할 예정이며 가을에는 현대 합창곡을 선보인다.
올해 창작 '유관순'을 무대에 올렸던 국극단(단장 송순섭)은 내년 창극 '안중근'을 선보인다. 2010년은 하얼빈역에서 이토오 히로부미를 살해하고 뒤편 감옥에 수감된 안중근 의사가 세상을 떠난지 100년이 되는 해라 더욱 의미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 이어진씨를 새롭게 단장으로 영입한 소년소녀합창단은 내년 신입 단장 취임 후 공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 '아리랑' 선보여 합창단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 국극단 안중근 순국 100년 창극 '안중근'

통해 광주·전남 출신 음악인들을 협연자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지난 28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오디션에는 관현악, 피아노, 성악 등에 전국에서 활동중인 지역 출신 음악인과 학생 등 32명이 참여했다.

또 5월에는 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음악회와 가정의 달 음악회를 준비중이며 올해 처음 시도했던 청소년과 대학생 협연 무대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2010년 이어진씨를 새롭게 단장으로 영입한 소년소녀합창단은 내년 신입 단장 취임 후 공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진정한 컬렉터가 되는 법

뉴욕에서 가장 많은 현대미술 컬렉션을 소장한 주인공은 팔손의 허버트 & 도로시 보겔(Herbert and Dorothy Vogel)부부다. 흔히 컬렉터 하면 재력가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부부는 광범한 샐러리맨 출신이다. 허버트는 전직 우편배달부이고 도로시는 도서관 사서로 40여년간 일했다. 하지만 뉴욕 미술계에선 '보겔 부부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 인사다.

그렇다면 샐러리맨 출신인 보겔부부가 뉴욕 최대의 컬렉션을 소장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예술에 대한 애정'이다.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허버트와 도로시는 시간만 나면 갤러리들을 순례했다. 1962년 어느날 미술관에서 '윤명작'으로 만난 두 사람은 마음이 통해 결혼을 했다. 신혼여행지는 워싱턴 D.C.의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Art). 수많은 미술품들을 보며 달콤한 허니문을 보냈던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작품들을 수집하기로 결의했다.

맨하탄의 한 임대아파트에 동거를 트 두 사람은 '컬렉터가 되기 위한 생활수칙'을 세웠다. 생활은 도로시의 수입으로, 작품구입은 허버트의 수입으로 하기로 했다. 작품구매 기준은 우체부 수입 한도안에서, 작은 아파트에 들 수 있는 소품으로 제한했다. 비슷한 예산으로 보겔 부부가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무명작가의 실험적인 작품이었다. 당시 생소한 미술사조였던 개념미술과 미니멀리즘 계열의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눈에 든 작가는 솔 르위트, 댄 그래함, 로렌스 와이너, 크리스토퍼, 척 클로스 등이었다.

아파트 임대료 내기도 벅했지만 부부의 '사치'는 계속됐다. 두 사람은 컬렉터 이전에 큐레이터의 눈으로 작품을 골랐다. 부부는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해 작품을 둘러보고 한 두점씩 구매했다. 또 매달 정기적으로 작가에게 연락해 어떤 작품을 새로 시작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이들의 '간소리'를 들은 솔 르위트나 척 클로스, 크리스토퍼는 오늘날 작품가격이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거장이 됐다.

지난 40년간 부부가 모은 컬렉션은 모두 4천782점. 작은 아파트는 이들 작품들로 뒤덮여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다. 이런 전문학적인 액수의 작품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부부의 생활은 여전히 구차스럽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부부는 소장품 가운데 1천점을 워싱턴 국립미술관에 기증했다. 허버트가 40년 전의 재킷을 지금껏 입으면서 모은 작품들이지만 대중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했었다.

지난 5월 보겔 부부의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허브 앤 도로시(Herb & Dorothy)'가 미 전역에 상영돼 큰 화제를 모았다. 재테크 수단이나 예술에 생명을 불어넣는 노 부부의 사연은 '컬렉터'에 대해 되돌아 보게 한다.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컬렉터는 신분 노출을 꺼린다. 컬렉션을 돈 많은 사람들의 재테크로 여기는 편견 때문이다. 이들 컬렉터들은 '공장'으로 이끌어내려면 컬렉션을 단순한 투기수단이나 돈 자랑의 도구로 보는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컬렉션이 풍성해질수록 미술관도 튼튼해지고 언젠가는 많은 사람이 감상할 기회도 늘어난다. 진정한 컬렉터의 미덕은 컬렉션을 '공유'하는 것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권여현 작 '들리크와-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영화 비틀기로 현대사회 꼬집기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모나리자의 콧수염' 전

내년 2월 21일까지

마르셀 뒤샹은 위대한 예술품 '모나리자'에 낙서하듯 수염을 그려 넣어 또다른 '작품'을 만들어 냈다. 이렇듯 시대를 풍미한 명작에 대한 패러디와 차용은 현대 미술에서는 이제 하나의 유행처럼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분관장 장경화)이 연말을 맞아 한국 현대미술에서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감성으로 명작을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낸 작품을 모은 특별한 기획전 '모나리자의 콧수염'전을 준비했다. 내년 2월21일까지.

'영화의 재발견', '명품 & 짝퉁', '스타 메이킹'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는 영화의 이미지를 빌려 원본이 지닌 의미를 탐구하고 재해석하거나 명품의 상표를 이용해 물질만능주의의 현대사회의

병폐를 꼬집는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또 메릴린 먼로나 마오쩌둥, 엔디 워홀 등 유명인사들을 독창적인 조형어법과 재료를 사용해 현대적인 느낌으로 만든 초상화들이 소개된다.
이번 전시에는 외국무대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김동유, 이이남씨를 비롯해 고근호, 권여현, 조대원, 양문기, 조윤성, 이동재, 이승우 등 9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와 조각, 영상, 설치 작품 등 50여점을 선보인다.
상록전시관의 김희랑 학예사는 "이번 전시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영화와 명품, 스타가 지닌 본래의 의미와 가치가 작가에 의해 어떤 각색의 과정을 거쳤는지, 또 어떤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지혜 귀국 피아노독주회

12월 4일 광주문예회관



강지혜

강지혜 귀국 피아노독주회가 12월 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강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하노버 음악대학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던 논문 주제인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A단조'와 베토벤의 '소나타 3번'을 들려준다. 또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의 전주곡집 가운데 '변덕스러운 라비느 장군', '달빛 쏟아지는 테라스', '불꽃' 등 3곡을 선사한다.

광주예고와 이화여대를 거쳐 독일 하노버 음대와 마인츠 음악대학에서 수학한 후 프랑스 에콜 노르말 퍼펙시옹느 과정을 마친 강씨는 국제안톤 루빈스타인 피아노 콩쿠르 4위 입상 등 다양한 콩쿠르에서 수상했다.

오는 12월 20일에는 서울 금호아트홀에서도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림순천대학교 특수대학원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Includes details for three departments: 1. 경영행정대학원(비인간계), 2. 시립문예대학원(인간계), 3. 신입대학원(비인간계). Each department lists admission requirements, application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